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259-12 3 층 T.02-778-4001. F.02-778-4006 pssp4001@gmail.com

<http://www.pssp.org>

## 2017 년 9 차 보건의료동향분석

□ 일시 2017년 8월 14일 (월) - 9월 3일 (일)

### <차례>

1. 제주도, 영리병원 허가 심사 중... 복지부, “허가권은 제주도에 있어”
2. 내년 건강보험료율 2.04% 인상... 직장가입자 평균 2천원 더 낸다
3. 복지부, 내년 예산안 64.2조로 확정... 모바일 헬스케어, 정밀의료 등 지원
4. 보건복지부, 보건산업 육성 위해 자금 지원 및 제도 개선 나서
5. 금융당국, 실손의료보험 전면 개편 공식화... 유병자·은퇴자 실손보험 도입 계획

### 1. 제주도, 영리병원 허가 심사 중... 복지부, “허가권은 제주도에 있어”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수도 있는 녹지국제병원이 지난 8월 28일 개원 허가 신청을 했다. 제주도 측은 신청서를 검토해 허자가 없으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현 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는 9월 6일까지라 차기 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9월 말에 심의할 계획이다.

위원회에서 심의는 하지만 허가권은 전적으로 제주도지사에게 있어, 도지사의 결정에 따라 개원 여부가 판가름 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영리병원 논란이 불거졌던 2015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개원을 허가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으며 제주도가 허가를 내주면 병원은 개원한다”라고 밝혔다. 병원 측은 10월 1일을 개원일로 잡아두고 있다.

관련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09254.html>

## 2. 내년 건강보험료를 2.04% 인상... 직장가입자 평균 2천원 더 낸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현행 6.12%에서 2.04% 오른 6.24%로 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보험료율을 결정했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과 수가 인상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천966원이,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가 1천853원이 오른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건보료 인상 폭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려면 일정 수준의 건보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가입자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견해가 맞섰다.

건강보험료율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4~6%대 인상을 보였으나, 이후로는 그보다 낮아져 2015년 1.35%, 2016년 0.9%에 머물렀다.

관련기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29/0200000000AKR20170829101453017.HTML?from=search>

## 3. 복지부, 내년 예산안 64.2조로 확정... 모바일 헬스케어, 정밀의료 등 지원

8월 29일, 2018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지출 예산은 올해보다 6.6조원 증가한 64조 2416억으로 책정됐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항목으로는 공공의료

및 국민중심 의료서비스 확대, 4차 산업혁명 대비 성장기반 조성 등이 있다.

특히 눈여겨볼만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원격의료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인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35개에서 70개소로 확대한다. 4차 산업혁명 대비 성장기반을 조성하고자 유전체 기반 정밀의료 개발 예산을 현행 35억에서 141억원으로 늘렸다. 또 라이프케어융합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114억원을 예산으로 편성했다. 라이프케어융합서비스에는 예방적 건강관리, 만성질환 관리 등 건강관리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

관련기사: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780>

## 4. 보건복지부, 보건산업 육성 위해 자금 지원 및 제도 개선 나서

보건복지부가 보건산업 육성에 적극 힘쓸 의지를 표명했다. 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8월 25일 '2017 보건산업 일자리 토론회'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약산업, 재생의료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제약기업의 신약 개발 투자 확대를 위해 세제지원 확대, 약가 우대, 인허가 개선을 한다. 치료재료, 체외진단기기 등 첨단 의료기기 기술개발과 임상시험 비용도 지원한다. 재생의료 분야에서도 선제적인 연구개발 투자, 첨단재생의료법 입법 지원, 재생의료인프라 구축을 통해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 역시 일자리위원회 산하 보건의료분야 특별위원회에서 보건산업을 일자리 창출 미래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 밝혔다.

관련기사: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5947>

## 5. 금융당국, 실손의료보험 전면 개편 공식화... 유병자·은퇴자 실손보험 도입 계획

지난 8월 17일, 보험관련 5개 학술행사단체가 '공(公)·사(私) 보험의 조화로운 발전방향'을 주제로 하계연합 학술대회를 열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따른 실손보험의 손해율 하락효과 정밀 분석 및 실손보험 구조의 전면 개편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병자·은퇴자 등에 대한 실손의료보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고객의 생활습관, 건강관리 노력 등에 관한 정보를 집적/분석하기 위해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할 것을 보험사에 촉구했다. 이를 이용해 계약자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보험료 할인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유병자·은퇴자 실손보험의 경우 높은 손해율이 예상되는데, 보험료와 보장 수준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쉽지 않다고 반발했다.

관련기사: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5947>